

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간담회 연설

■ “역사의 필연적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존경하는 우리 당의 여러 부위원장님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뵈면서 후보가 되기 전이나 후에도 마음에 항상 안쓰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세월을 온갖 그 가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싸우고 그리고 또 마침내 정권교체까지 이렇게 이루어 내는데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또 인생 전부를 바쳤다가 이렇게 말할 만큼 노력해 왔습니다만 대체로 '부'자 달린 자리라는 것이 맨 앞줄에는 잘 갈 기회가 없고 또 좋은 자리나 좋은 혜택이 있을 때 역시 가운데 앞설 기회가 잘 없고 그래서 봉사는 크고 보답은 적은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마치고 나서, 어려운 일이 끝나고 좀 집안이 편해지면 마음에 허무한 감정이 먼저 남는 그런 자리라 참 여러분 심경에 만감이 항상 교차하신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 가지고 민주화 운동 짧게 하고 금배지 달고 또 달고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실은 그런 그늘에 있는 사람의

설움을 잘 모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냥 지 잘난 맛에 교만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걱정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당일 때나 또 여당이 되고 나서나 여러분들 뵈면 제가 마치 무슨 빛을 진 사람이거나 또 죄를 짓기라도 한 사람처럼 언제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게 제가 밥 한 그릇 사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가서 인사 한 번 할 기회도 없었던 점 여러분들께 참 미안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굳이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렇게 명성이 있고 좋은 기회를 맞은 사람치고는 실제 상황이 그렇게 호강스럽지를 못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대화하고 이렇게 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들께 낙이 있다면 그래도 나한테는 아무 기회가 없어도 좋으니 제발 선거에 좀 이겨주라. 말하자면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그야 말로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어서 국민들한테 사랑 받는 정권 신뢰받는 정권이 되어 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부가 여러분들도 하시듯이 그야 말로 중요한 문제 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업적을 남겨놓고도 오히려 역사로 보아서는 작은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감정에 민감한 문제 몇 몇 가지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요즘 국민들한테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듣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프면 아플수록 정말 우리가 다시 정권 잡아서 한 번 다시 잘해 보아야겠다. 공(功)이 접힌 부분도 빛나게 해야겠고 또 과오로 평가받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고치고 복구

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가 한 번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심경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런 심경이 간절하신 여러분 앞에 제가 한때는 천정부지로 여론지지가 높아지고 마치 한 순간 얼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수준까지 갔던 지지가 지금 여러분들께 걱정스러운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빠져버린 데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거나 간에 송구스러운 것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여러분들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해 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때때로 저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을 것이고 조금한 모습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침체된 느낌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를 거론하면서 제 입장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큰 주름으로써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고 또 그 정치에 큰 보답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까닭은 소위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박론을 내놓고 다룹니다. 이것이 잘 정리된 것이 흔히들 우리가 정책이다 노선이다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강정치라는 것은 이념과 노선,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정책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국민들이 예측했던 결과가 나오고 기대했던 결과가 정치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이전에 굳건한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민주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세력은 오랜 세월동안 반독재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독재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의 시대, 권력과 또는 재벌과 정경유착의 구조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할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땀 흘린 보람과 대가마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민주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싸울 때 우리 민주당이 함께 싸웠습니다.

정치를 중심에 놓고 싸웠지만 87년 6월항쟁이 끝나고 난 뒤 7, 8월에 그것이 평가를 어떻게 받든 억눌려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의 투쟁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야 말로 이 땅에 많은, 많은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열심히 해오신 우리 선배들의 투쟁에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의 투쟁을 해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야 말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의 무엇도 바라지 않는 그리고 나서 정당한 대가를 꼭 받고자 하는 그야 말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다 기회가 좋지 않았던지 능력이 부족했던지 경쟁에서 떨어지고 남달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가치의 지향을 잃어버리면 또는 잃어버리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꼭 잡아야 하는 소임은 바로 우리가 대변해 주어야 할 이 땅의 성실한 보통사람과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자기 탓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동서가 하나로 화합하고

또 남북이 서로 손잡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는 이 책임도 우리 민주당의 몫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한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민주당의 그야말로 존재가치입니다. 이 존재가치를 지켜내서 이겨야 이긴 보람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존재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저도 좋다는 말이나 이렇게 금방 의문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치를 지킬 때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다시 지지하고 표를 주는 것이지 이 존재가치를 포기했을 때 어느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다시 표를 주겠습니까?

지난 5년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지금은 잘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갈라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와 같은 가치를 율율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나마 설 땅이 없어 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다행히 다른 두 후보가 지지기반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권을 잡아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가치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 그런데 잘 못하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 버리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외면하지 못하니까 한번쯤 돌아봅니다. 그 심정은 무엇이나, 이 한국에서 민주당 말고 누가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며 노사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누가 남북에 대화를 성공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것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오

늘 민주당의 모습에 말만하고 민주당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 가슴깊이 사랑을 묻어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무조건 후보 자리를 지키겠다 후보가 기득권자다 그래서 나는 지키겠다 저는 그렇게 정치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치하려던 90년 3당합당 때 이미 길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92년 대통령선거에 돈 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무슨 국민당이다 무슨 당 만들어 가지고 온 정치 판에 돈 냄새 풍기고 전국에 관광바람 일으키고 있을 때 저도 그때 거기에 가서 대접 꽤나 받았을 것입니다.

96년 15대 총선 때도 다시 여당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하고 야당에 그냥 남았습니다. 아니 98년 종로에서도 또 연거푸 경험으로 또 여러분 모두가 피땀 흘려 만들었던 정권교체의 덕분으로 제가 종로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00년 4.13총선 때 전 종로에 가만 주저앉아있으면 다시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당을 버리고 저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하나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것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될 우리의 시대를 가자, 우리 당이 꼭 이루어 내야 할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해 왔었습니다. 제 충정을 믿어주십시오. 믿어 주시고,

작년 이맘 때, 당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 이맘 때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리라고 믿어주신 분이 여기에서 그리 많지 않았습니까? 몇 몇 분께서 제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한심했으니깐요. 오히려 믿어주신 분이 더 고맙고 절 지지해준 분들도 믿지 않으면서도 노무현 당신 '거 질이 괜찮다' 되든 안 되든 다시 들어주겠다는 심경으로 믿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컨대 민주당이 분열이 생겨 가지고 그 분열의 끝에 국민경선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국민경선이 위기에 결합되고 특히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과 혼합이 되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낼 줄은 작년 이맘 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때 이미 지금 보다도 더 참담한 패배감에 젖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땐 민주당이 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한몫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58일 남았습니다. 58일이면 그때의 달력으로 따지면 두 번 이상 새로운 돌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제 불찰로 또 국민과 언론반격으로 그리고 우리 민주당 내부의 적절치 못했던 대응으로 우선 이렇게 해서 오늘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오늘 이와 같은 불행한, 아직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내부를 정리하고 저도 좀더 제 자신을 다듬고 그래서 다시 깃발을 들고 이렇게 나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당에 분란이 있을 수 있으면 다른 당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진영에도 모든 것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주저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들어가는 몇 가지 사실들, 예를 들면 중등교육의 평준화문제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

들자면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시장의 개혁, 재벌의 개혁을 반대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일, 주5일 근무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 나라들의 판단과 선택을 눈여겨보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다 대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 한·중 위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놓쳐버렸을 때 상황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단지 국민들의 지지를 위해서 모든 대북 지원을 끊어야 된다. 심지어 금강산관광사업마저 중단해야 되고 그 외 계획된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 극단적인 처방을 무책임하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오고 한국에게 안정과 평화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진영을 변화시킬 것이고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젊고 전도 유망한 젊은 한 의원이 탈당하고 떠나서 다른 진영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낙담했습니다. 낙담했는데 그러나 그날 오후부터 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까지 한 2만2,000명 정도가 헌금을,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6억2,000만원 정도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역사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다면 이처럼 공개되지 않은 어떤 시기에 그야 말로 오랜 세월 수십년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박해 받으면서 싸워왔던 우리 김대중대통령 한 분만 아마 이런 지지를 받아봤을 것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느라고 했지만 그 동안 우리 선배 민주 지도자들이 걸어온 길에 비하면 제가 뭘 드릴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지는 그 분들이 받았던 과분한 지지를 받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얼마나 가다가 또 약간 수그러드는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바람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뀌고 새로운 지지를 마련해서 강한 바람이 되고 열풍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작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30대에서부터 지지의 이동이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연대라는 것은 그야 말로 아무 원칙도 이유도 없는 그야 말로 언론이 생각하나만 가지고 못 믿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해타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시절에 예측하지 못했던 승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85년 2.11총선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승리 아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4.13 온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누가 확신했습니까?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힘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97년 정권교체인들 우리가 감히 예측할 일입니까?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당이 걸어야 하는 역사의 가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권을 가진 사람, 오로지 지배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야 합니까? 분열과 불신과 대결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넘어가야겠습니까? 이제 독재의 시대를 지나서 엘리트의 시대 소위 권위주의

엘리트민주주의를 지나서 이제 그야 말로 평범한 여러분들이 당의 주인이 되는 대중민주주의 내지 수평적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갈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특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제 그야 말로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고 이제 그 특권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적절한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화합의 시대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필연적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좀 밋더라도 어떻습니까? 뽑아 놓은 사람이 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바꾸려고 보니까 잘 바뀌어지겠습니까? 꼭 노무현이 끌어안고 잡시다.